한미약품, 동아제약 인수 “군침?”

임성기 회장, 자사주 300억원 상당 맞교환 제의 ... 동아제약은 거절

한미약품이 최근 동아제약에 주식 맞교환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약 일부에서는 동아제약이 부자간 경영권 분쟁에 휩싸인 틈을 타 동아제약을 인수합병(M&A)하려는 뜻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은 3월9일 저녁 서울 모처에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을 만나 두 회사의 자사주를 300억원 상당씩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두 회장의 만남은 한미약품 측에서 먼저 만나자고 제의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기 회장은 대신 3월말 열리는 동아제약 주주총회에서 강신호 회장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신호 회장 측은 현재 둘째 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 측의 경영참여 요구에 직면해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여야 하는 어려운 처지이다.

현 시가를 기준으로 300억원 상당은 동아제약 지분 4%, 한미약품 지분 2.8%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성기 회장의 제안대로 주식교환이 이루어지면 한미약품은 추가로 4%의 동아제약 지분을 확보하게 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6.27%를 포함 동아제약 지분이 10%를 넘게 된다.

한미약품이 충분히 동아제약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는 지분이다.

한미약품은 직접 나서지는 않지만 우호세력을 내세워 현재도 동아제약 주식을 추가 매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약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임성기 회장은 2000년에도 고교 동창이 경영하는 한양정밀과 손을 잡고 동신제약 M&A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 한양정밀은 물론 동아제약의 지분 4%를 보유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동아제약 경영 향방의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동아제약은 한미약품의 제안을 검토한 끝에 거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제약은 한미약품의 움직임에 매우 위협적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현재 강신호 회장 측은 6.9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둘째 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전 대표 측은 14.71%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한미약품마저 가세함으로써 동아제약은 자칫하면 외부세력에 의한 적대적 M&A에 몰릴 위기에 처해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12>